

## 차별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전시

광주 비엔날레 한국작가 특별전 〈Korean Express〉를 준비하면서...

장 석 원 · 전남대학교 교수

〈Korean Express〉는 한국 특급이라는 의미로 한국현대미술의 역동성과 독자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전시이다. 물론 그것은 세계를 향해서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려는 강렬한 몸짓이다. 한국 현대 문화의 역동성과 독자성이 아무리 독특하다 해도 그것은 글로벌한 세계 문화의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한 흐름에 편승하거나 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한국현대미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차별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다.

### 독특한 작품세계를 가진 작가들과의 만남

광주비엔날레의 한국작가 특별전인 〈Korean Express〉를 준비하면서 나는 국내외의 작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현대의 생동하는 미술 담론이 작가들에게서 발견되기에 그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들을 정리해 본다.

2003년 말경 문예진흥기금 심의에서 나는 몇몇 신진작가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전반적 심의 과정에서 신진작가 부문이 신선했기도 했지만, 그 심의에 가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자료와 작가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서울대 조소과를 나와 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런던의 골드 스미스에서 석사를 마친 홍영인은 건물 옥상에 교회의 침탑과 같은 뾰족한 삼각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주홍빛 발광 방수포를 씌워 멀리서도 특이해 보이는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교회가 상징하는 성스러움과 발광 방수포가 반영하는 값싸고 일회적인 현대의 대중적 삶을 이중적으로 교란시키는 설치 작품이다.

미술 속에 종교와 사회적 대중의 연관 관계가 단순한 침탑의 표징으로 나타난 흥미로운 작품이다. 같은 자리에서 만난 박애희(1979년생)는 한성대를 나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애송이 작가이다. 애송이라는 것은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다. 그녀가 제시한 ‘핀업걸’이라는 사진 작업은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옷, 천, 악세사리 등을 변조시켜 아하고 매력적인 패션(?)으로 둔갑시킨 후, 그것을 작가 자신이 몸에 걸치고 찍은 것이다. 마치 섹시한 유명 여배우의 몸짓들처럼 귀엽고 매력적이며 변칙적이다. 그녀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일상과 사회에 대한 꾸념, 독백, 반항, 동료의식 등처럼 그녀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세대의 한 가운데에서 있다.

60대 중반의 조각가 조성묵과는 어쩌다 같이 바둑을 두곤 한다. 그는 특별히 바둑 두는 장소로 자신의 스튜디오를 제안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국수로 만들어진 소파, 테이블, 전등, 침대, 바닥, 벽 등 온통 국수라는 부서지기 쉽고 먹을 수도 있는 재료로 된 설치 작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설치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이고 싶은 사람을 초청해 놀라게 하고 있었다. 평소에 돌, 브론즈 같은 단

단한 매체를 이용, 메시지가 담긴 의자 작품으로 알려진 그가 내밀하게 실험적 근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과거 AG 운동 시절부터 익혔던 실험 정신이 유행과는 다른 양태로, 국수라는 소프트하고 식문화와 관계된 독특한 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Korean Express〉 전시회의 의미와 해외거주 작가들

〈Korean Express〉는 한국 특급이라는 의미로 한국현대미술의 역동성과 독자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전시이다. 물론 그것은 세계를 향해서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려는 강렬한 몸짓이다. 한국현대문화의 역동성과 독자성이 아무리 독특하다 해도 그것은 글로벌한 세계 문화의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한 흐름에 편승하거나 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한국현대미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차별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다. 여기에는 국내의 한국작가 28명의 작품과 별도의 비디오 자료 공개가 따른다.

뉴욕을 방문하기 1달 전쯤 현지거주 작가 조숙진에게 작품 자료를 요청했다. 그녀는 이메일로 Cathedral이라는 명제의 자료를 보내왔다. 부서진 의자, 가구 등의 파편으로부터 생활에서 만나는 술한 오브제와 그 부품들을 500여 개 천장에 매단 작품이었다. 그녀는 왜 그것을 성당이라고 명명했을까? 그 이유야 어쨌든 그것은 강하고 압도적인 인상을 가져다주는 작품이었다. 관객의 머리 위에 자리 잡은 갖가지 사물의 파편들... 물질성이 지배하는 현대의 진도된 정신성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비엔날레의 더 넓은 로비 공간을 떠올리며 미국과 한국에서 모은 2,000여 점의 오브제를 천장에 매다는 상상을 했다. 로비 공간으로 밀려드는 관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기억을 갖게 할 것이다.

미국에 이민간 지 30년이 되는 화가 남기창은 살기 위하여 다양한 막일을 해왔다. 그는 그 30년 동안 작품을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유화, 드로잉 등을 해왔다. 십여 년 넘게 해오고 있는 새벽 2시~6시 사이의 빵 배달은 낮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눈길을 끄는 그의 연필 드로잉은 신문, 잡지 등에서 찾아낸 인체를 구조화시킨 것이지

만, 그 이면에는 이민 전 한국에서 배운 순수미술의 관념과 그가 몸소 체험한 미국 문화의 융합이 배어있다. 그의 빵 배달은 거리의 푸싱 카트(커피, 빵 등을 파는 이동식 가게) 54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그는 미국을 보고 또 순수미술에의 꿈을 키운다. 순수라는 관념 자체가 낡은 현대미술의 판도에 아랑곳없이 그의 작업은 그 투명성을 유지한다.

재미화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강익중은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광주 시민을 위해 1만여 개의 그림으로 엮어진 구조물을 만들고 혼을 위로하는 곳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조물에 매달린 각종의 오브제가 진동으로 인하여 부르르 떠는 장치도 달겠다고 한다. 광주와 세계를 잇는 곳 개념의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신미경은 비누를 사용하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을 모방한다. 고전적 조각을 비누라는 일상 재료로 재생시킴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작업 행위가 되며, 바로 그 고전적 작품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Translation이라는 명제를 붙이고 있다. 과거적 시간대의 대리석 작품은 그 시간의 두께 속에 묻히는 것 같지만, 비누 조각으로서 새롭게 조형되는 미묘한 뉘앙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 광주권 작가들의 참여 및 전시회에 대한 기대

〈Korean Express〉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광주 작가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광주, 한국, 아시아, 세계를 잇는 동양적 담론을 창출해 가는 데에 있어서 광주가 그 근거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며, 4회에 걸쳐서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권 작가들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4회가 진행되는 동안 타 지역보다 광주권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려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광주화단이 소외감을 갖는 것은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화풍이 배제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첨단적 경향을 반영하는 비엔날레에 좀처럼 개입할 틈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광주 화단도 변화하고 있다. 대안미술에 가까운 실험적 전시가 비 전시공간에서 열리는가 하면, 전통적 회화 개념 역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 해외 유학생 출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매체나 설치미술을 구사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이번 광주권 작가들은 그 새로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었다.

우선 한국화가 윤남웅은 담양의 장터 국밥집에 몇몇의 작가들과 전시를 연 적이 있는 작가이다. 담백한 먹으로 장터 근처의 아줌마를 소재로 한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의 그림들은 바로 담양 장터를 근거지로 사는 사람들의 초상이었다. 전시가 끝나는 날 국밥집 아줌마는 그림들과 헤어지는 것을 무척 슬퍼했다고 한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서 학·석사를 마친 김주연은 귀국 직후의 사루비아 개인전 <이숙>에서 생태적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웨딩드레스처럼 길게 늘어진 옷에 촘촘히 미세한 씨앗을 전시 기간 내내 자라게 해서 점점 식물성으로 뒤덮이게 한 작품이었다.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할 때에는 미술관 주변의 폭풍으로 넘어진 나무를 전시 공간으로 옮겨 자라게 하였다. 그녀는 미술과 현실과 생태를 연결시키며 새로운 발견을 제시한다. 미술작품에 익숙한 관객들은 그녀의 새로운 제안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광주의 60대 서양화가 오승윤은 오방색을 주제로 산과 새, 사람 등을 기호화시킨 풍수 시리즈를 그려왔다. 그는 한국 인상주의 화풍의 선구자 오지호의 아들이다. 오승윤 역시 국전 출품 시 부친의 화풍을 닮은 사실적 화풍을 견지했다. 그는 국전에서 6번 특선 입상하는 실력을 보였다. 그가 풍수 시리즈로 화풍을 바꾼 것은 독자적 스타일을 갖춘 것이기도 하지만,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감성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젊은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참여하는 그는 전통적 화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인기 연예인, 패션 사진 못지않게 아프리카 사진으로 잘 알려진 김중만은 광주비엔날레의 참여를 매우 기분 좋게 생

각했다. 청담동 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는 촘촘히 땀은 이국풍의 헤어스타일에 응접세트 주위에 설치된 자연목 나뭇가지, 그 주위를 나는 화려한 빛깔의 새, 사면적 힘이 느껴지는 목조각 등 이색적인 무대 위에서 있었다. 청년기에 의사인 부친을 따라 아프리카에 갔다가 프랑스 니스의 장식미술학교를 다녔다는 그의 이력은 그 세대의 여느 사람들과 다른 빛깔을 띄고 있다. 찰칵하는 순간의 이미지에 모든 것을 거는 사진작가로서 그는 연예인들의 시대적 초상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사진을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 김아타는 유리박스 안에 가부좌를 튼 누드를 보여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의 작업은 시간성을 도입하여 한 장의 화면 안에 이미지가 누적되는 프로세스를 보인다. 1시간 동안 열린 셔터에 담긴 두 남녀의 섹스... 무수히 중첩된 이미지는 한 가운데 동심원을 그리며 드문드문 팔, 다리가 보여 인체라는 사실이 암시될 뿐 그것은 더 이상 섹스도 누드도 아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 작가는 사진이라는 메카니한 방법을 빌려 쓰면서, 좌대에 앉은 불상과 유리박스 안의 누드가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며, 1시간 동안 누적된 섹스 행위가 만다라 같은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게 한다. 테크놀로지는 진실의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다르지 않다.

나는 단편적인, 미완의 작가 소개로 <Korean Express>의 전시 담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전시는 아직도 준비중이며, 작가 명단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위에서 거론된 작가 역시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 구성과 더불어 전시 연출을 통하여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고 싶다. 많은 한국의 현대 관객들이 기대하는 뭔가 특별한 그것을 나는 정반대편에서 그 특별한 무엇을 제공하고 싶다.

한국현대미술을 서구의 아류 정도로 여기는 외국인 관객들이 놀라서 다시 돌아보아야 할 그 무엇을 특별하게 드러내고 싶다. 어찌 보면 그것이 내 전시 계획의 전부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는 그 이유가 다른 어떤 거창한 이론보다도 더 큰 무엇을 제공하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